

12 News

기관 · 단체소식



농림수산식품부

고병원성 AI, “관심” 단계 위기경보 발령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9개월만에 재발되었고 우리나라에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전국단위 “관심” 단계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주변국가의 AI 발생 등에 따라 국내 고병원성 AI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및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2008. 11. 11)를 거쳐 발령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기경보(관심단계) 발령으로 방역기관별 및 생산자 단체에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전국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AI 예찰활동 및 차단방역 강화 등 고병원성 AI에 대한 국내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 관광객의 주 방문지역인 태국 등 AI 발생국가 여행객에 대한 탐지견 집중투입, 휴대물품 검색강화, 신발소독 및 홍보활동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철새 도래지 방문금지, 출입차량 및 방문객 출입통제,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 등 차단방역 홍보 및 지도·점검 등 현장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수의과학검역원 관계관으로 시·도별 점검단을 편성(8개반)하여 양계농가, 부화장, 도축장 및 가축운반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 및 소독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운영 중이나 주변국의 고병원성 AI 발생 및 겨울 철새의 본격 유입 등에 따라 방역기관 및 농가들이 고병원성 AI 유입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더욱 철저한 차단방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산업을 2012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3일 식품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식품산업 발전 방안 공청회(6. 5), 식품산업진흥심의회(10. 10) 등을 비롯한 수십여 차례의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11월 12일 정부 장관회의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식품산업의 미래 성장과 농·어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100조원인 식품산업 시장을 2012년까지 연 7% 성장시켜 150조원의 시장으로 확대시키고, 38억불 수준인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한식을 세계인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세계 5대 음식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으로 첫째,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고, 둘째, 글로벌화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기·관·단·체·소·식

MKC Monthly Korean Chicken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7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는데, ① 안전한 농수산물 생산·공급 강화, ② 식품 R&D 투자 확대, ③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④ 농수산물 수출 확대 지원, ⑤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⑥ 식재료 산업 활성화, ⑦ 농어업·식품산업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물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참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금분야 협의체 회의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 10월 27일 가금분야 협의체(위원장 권준헌 조류질병과장) 2008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연구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면역억제성 질병과 HACCP관련 질병 대응연구, 가금질병연구회 학술대회 개최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 위원들은 양계농장에서 닭전염성빈혈, 감보로병 등 면역억제성 질병으로 인한 후속 피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준헌 조류질병과장은 “가금분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 과제들을 도출함으로써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금분야 협의체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현장애로 기술 발굴을 목적으로 2005년 8월에 구성되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 조류질병과가 주관하는 분야별 협의체이다.

중국산 열처리 오리육에서 클로람페니콜 검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1월 7일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햄)에서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미 수입검역이 끝나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해당작업장(Cooked Foods Processing of Weifang Legang Food社, 작업장 번호 3700/03355) 물량(20건 49.9톤)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그중 1건(3톤)에서 클로람페니콜이 미량 검출(0.0006ppm)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중국산 열처리 오리고기(햄)의 수입업자로 하여금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해당물량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농림수산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중국의 모든 작업장에서 생산한 열처리 가금육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에 클로람페니콜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AI 진단기술 전수 등 연수 진행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의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17일간 우리나라의 AI 방역경험과 진단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내의 AI 방역경험과 주요 질병의 방역체계를 소개하고, 질병 진단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각 국의 방역체계를 논의하고 AI 공동대응방안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아눈 만(Anun Man, 수의청 근무) 대표는 “지방과 중앙의 체계적인 가축방역 시스템과 검역원의 실험실 시설 및 진단기술이 인상적”이며, “한국의 방역체계는 아세안 국가의 모범”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8개국 18명의 참가자들은 연수기간 동안

검역원 탐지센터, 축산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체험을 통해 체계적인 국내 가축방역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채로운 친교 행사를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합동으로 철새도래지 관리실태 조사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상호 방역관리와 야생동물의 보호차원의 일환으로 천수만 일대에서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0월 14일 양기관의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 실시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주요 철새도래지 관할 지자체인 충남 서산시청을 방문하여 천수만 일대 방역상황을 조사하고, 주변경작지(조류사육농가)의 방역관리 및 감시활동 강화,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

부했으며, 또한 철새도래지에서 폐사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체계를 점검하는 등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합동으로 조사했으며, 연말까지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HACCP 현장견학 및 세미나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천주 회장을 비롯한 7개 소비자 단체와 축산관련 대학·단체 임원 및 관련기관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업체 견학과 함께 수안보 상록리조트에서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 교육은 HACCP 도입 과정 및 도입 후 효과 등을 직접 현장에서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세양주식회사(알가공업), CJ제일제당(주) 신선 진천 육가공공장(식육가공업), (주)한일팜스(식육가공업), 남양유업(주) 천안신공장(유가공업), (주)다영푸드(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

업) 등 총 다섯 업체를 견학했다.

세미나는 기준원의 HACCP추진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충주축산농협(식육판매업), 비전농장(돼지사육단계), 농업회사법인 (주)삼화육종(닭사육단계)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현장 견학 참석자들은 축산물 HACCP이 가축사육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HACCP을 지정받은 작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보니 한층 더 안심이 되고 축산물 HACCP에 대하여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축산물 HACCP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단체·학계 등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HACCP 지정 작업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11월 20일 본원 3층 대강당에서 기술지원국 이원철 국장 외 6명과 수의과학검역원 담당자 1명과 함께 총 54개 업체에서 총 63명의 HACCP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HACCP 지정 작업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09년 1/4분기 정기 심사 대상 업소 중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가공업 작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른 정기심사 절차, 업종별 2008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해설과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업체 실무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HACCP 운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회 찾아가는 축산물HACCP 기술상담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지난 11월 6일 본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들어 4번째로 찾아가는 축산물 HACCP 무료 기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기술상담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총 71개 업체 80여명이 참석해 8명의 상담원이 1대 1 형식의 맞춤형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최근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의 주요 변경사항과, HACCP 적용절차 및 주요 지적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질의 및 응답을 거쳐 개별 상담 순으로 실시했다.

2008년 들어 4회에 걸쳐 실시한 찾아가는 기술상담은 민원 편의 제공과 각 지역별 축산 및 유통 담당직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 식탁 안전과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준원은 2009년에는 지역을 좀더 세분화하여 내원 상담이 어려운 원거리의 영업자들에게 보다 실속 있고 심도있는 상담으로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항생제 대신 김 이용해 닭·돼지 사육 성공

국립수산과학원(원장 박종국) 군산수산사무소는 국내 최초로 항생제 대신 김을 닭과 돼지의 사료에 혼합하여 사육하는데 성공했다.

홍종민 소장은 지난 11월 12일 “항생제의 과다 사용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감이 증가됨에 따라 김에 포함된 porphyran(특수다당성분)의 면역력 증강효과에 대해 지난 한해동안 예비시험을 거친 뒤 김을 가축사료에 혼합해 돼지는 5개월여, 닭은 30일~40일 사육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양식을 할 때 처음 채취하는 김과 마지막 채취하는 김을 버리거나 아주 싼값에 판매하는데 따른 자원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돼 김양식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김 혼합 사료에 대해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수산업과 축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관·단·체·소·식

MKC Monthly Korean Chicken

(사)대한양계협회**한·중 양계협회 친선교류 가져**

중국 북경양계협회(회장 왕장계) 관계자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지난 11월 3일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를 방문해 한·중 친선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국 방문단은 자국보다 앞선 한국의 양계산업 시설 및 현황뿐만 아니라 양계협회 역할 및 정부지원 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고곡물가와 관련하여 중국도 사료원료의 50% 정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양국의 양계협회는 앞으로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업무효율화 방안 모색’ 위한 워크숍 개최

(사)대한양계협회는 직원단합을 도모하고, 회원서비스 배가활동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경기도 양



평 소재 아띠울펜션에서 ‘2008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08년도 사업실적 점검을 통해 오는 2009년도 신사업 소재를 발굴해 현재보다 나은 회원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협회발전 방안 및 재정 자립 확보방안에 대해 토론 시간을 가졌다.

또 알선사업 규모를 확대해 협회를 통한 대량구매로 보다 단가를 낮출 뿐 아니라 생산자와의 연결다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본회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의 영역을 확장해 홈페이지 정보 활용도 증대, 회원농가 대상 표본지침서 발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가금학회**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이상진)는 지난 11월 14일 충남 성환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대학, 연구소, 업체 및 협회에서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신진가금학자 특강, 대학원생 우수논문 구두발표 및 포스터 발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신진가금학자 특강에서는 육계와 산란계의 생산성 향상 및 기능성 가금산물 생산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사료관련에 종사하는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대학원생 우수논문 구두발표회에서는 가금류의 질병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백신주의 특성, 생식세포 신호전달 체계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계란의 품질향상을 위해 방사선 조사에 따른 난백단백질의 특성 및 인경채소 추출물의 이용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포스터 발표회장에서는 한국재래닭의 유전적 특성 구명, 사료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주정박의 사료가치 평가, 종오리와 육용오리의 생산성 및 특성 구명 등 33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한편 제25차 한국가금학회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으로 박장희 소장(한국사료협회)이 선임됐으며, 차기 수석부회장으로는 김재홍 교수(서울대학교)가 선출되었다.

정기총회에 앞서 이사회에서 회칙과 관련하여 제기된 회장 연임문제의 경우 현행 1년 단임을 1년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

‘AI 바로 알기’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회장 윤홍근)는 지난 11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농림수산물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AI 바로 알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행사로 경북대 김기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선진국이라 볼 만큼 방역체계와 의료·위생체계가 안전하다”며 “시가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은 사육·방역·의료·위생체계가 열악한 후진국에서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윤홍근 협의회장은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몇 차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사육농가에서 닭이나 오리를 접촉한 사람을 포함해 단 한 명도 감염된 사람이 없다”며 “가금류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지만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고, 우리가 요리로 먹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어린이 식품환경 수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최근 들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과자류, 가공식품 등의 먹을거리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영양교사가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식품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어린이들을 지키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앞장서는 역할을 다지기 위한 ‘어린이 식품환경 수호 실천 결의대회’를 지난 11월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16개 시·도 영양교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행사에서는 홍보영상물(영양교사가 관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상영, 어린이 식품환경 수호 실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2부 행사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식품환경 실천 방안(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장) 및 프로페셔널 영양교사로서의 사명과 역할 정립 방안(양일선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특강,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실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현장 발언, 영양교사 실천결의 및 다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축산자원 개발과 안전성 제고 방안 심포지엄’ 개최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는 동물생명과학대학 개관기념으로 오는 12월 5일 ‘축산자원 개발과 안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관 711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사료비 상승, 축산분뇨처리, AI, 소모성 질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제유가와 환율상승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생산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 보자는데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건국대학교 오명 총장을 비롯해 학계, 기관, 단체, 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발표 내용으로는 ▲한국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계육 및 가공품 수출전략(강창원 건국대학교 교수) ▲해외 사료자원개발 추진방안(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장) ▲축산식품 안전성 제고방안(김정주 건국대학교 교수) ▲식품 중 곰팡이 독소의 신속 분석기술 동행(정덕화 경상대학교 교수) ▲가축생산단계 HACCP 도입에 대한 식육시장반응 연구(최승철 건국대학교 교수) ▲새로운 병원성 미생물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윤성식 연세대학교 교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